

한국과학기자협회 ‘과학기술 정보와 언론매체에 대한 인식조사’

국민 80% 이상, 즐기세포 질병퇴치 기대

글_ 권영일 과학저널리스트 zeus@scinews.co.kr

우리 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즐기세포가 질병퇴치 시기를 상당히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응답자 10명 가운데 9명이 황우석 교수의 즐기세포 연구에 관련한 정보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60% 이상이 과학기술과 관련한 정보전달에 있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응답자 10명 가운데 4명은 자신의 과학기술관련 정보를 상식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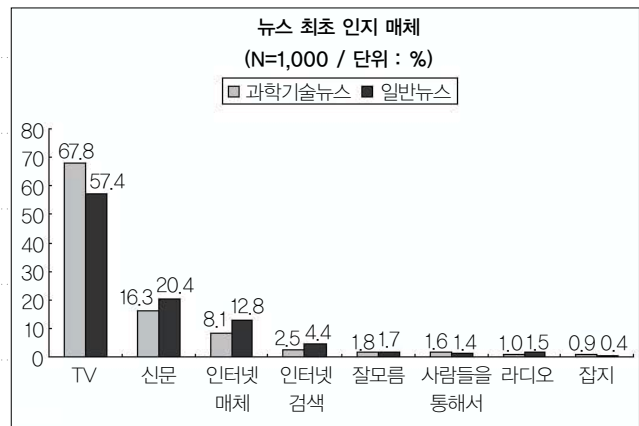
이 같은 ‘과학기술 정보와 언론매체에 대한 인식조사’는 한국과학기자협회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전국의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24일부터 26일 사이에 전화조사로 진행되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였다.

이번 조사의 내용은 ①과학관련 정보와 일반정보의 인지경로 ②과학기술관련 정보의 전달에서 중요한 가치 ③각 매체에 대한 신뢰성, 정확성, 평이성에 대한 인식 ④과학관련 정보에 대한 매체별 구매의사 ⑤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즐기세포 연구의 인지여부와 수집정보의 매체별 유용도 ⑥즐기세포 연구와 질병퇴치 시기 ⑦과학지식 수준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등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이였다.

국민의 68%, TV 통해 과학 뉴스 접해

조사 결과 우리 나라 국민들의 10명 중 7명 정도는 ‘과학기술 뉴스’를 TV를 통해 처음으로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신문(16.3%), 인터넷 매체(8.1%), 인터넷 검색(2.5%)순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인 뉴스’도 최초 인지 매체는 TV(57.4%),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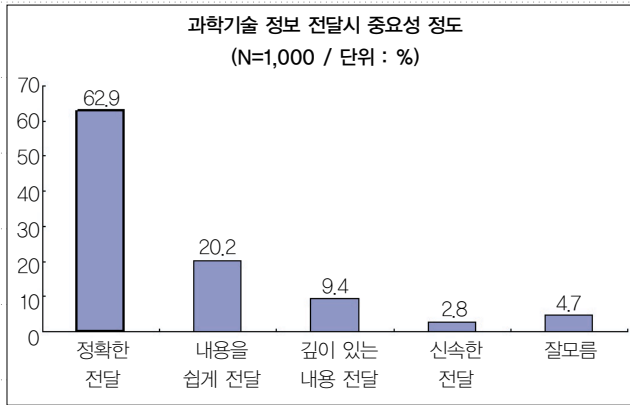


(20.4%), 인터넷 매체(12.8%) 순으로 나타나 유사한 인지경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과학기술 뉴스의 TV에 대한 집중도가 더 높았다.

응답자를 특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TV라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남성(19.0%)은 여성(14.1%)보다 신문을 선호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79.3%)과 30대(71.4%)가 TV를 통해 과학기술 뉴스를 최초로 인지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반면, 신문이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40대가 25.3%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10~15% 정도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0대의 경우 ‘인터넷 매체’라는 응답이 20.4%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과학기술 뉴스를 처음으로 인지하는 매체는 전체적으로는 TV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연령에 따라 인지매체가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TV(중졸 이하: 87.4%, 고졸: 75.7%, 대학재학 및 졸업: 59.1%, 대학원 재학 및 졸업: 46.0%)보다는 신문(중졸 이하: 4.9%, 고졸: 14.3%, 대학재학 및 졸업: 19.1%, 대



학원 재학 및 졸업: 34.0%)과 인터넷 매체(중졸 이하: 0.7%, 고졸: 3.4%, 대학재학 및 졸업: 13.0%)를 통해 과학기술 뉴스를 접한다는 응답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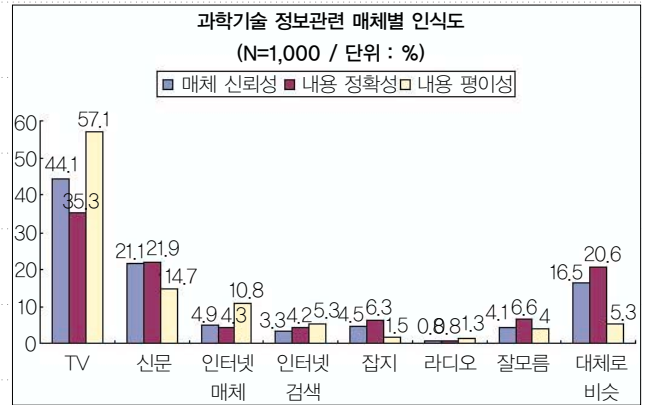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60.2%는 처음 과학기술 관련 뉴스를 접한 후 추가 정보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 정보를 얻게 되는 매체는 TV(32.1%), 신문(29.2%), 인터넷 매체(15.8), 인터넷 검색(13.6%), 잡지(4.5%) 등으로 나타나 최초의 인지에 비해 신문, 인터넷 매체 및 검색, 잡지에 대한 활용도가 높았다.

추가 정보에 대한 매체별 응답률은 연령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인터넷 매체(31.0%)가 가장 높았고, 30대와 40대는 신문이라는 응답이 각각 30.9%, 35.8%로 가장 높았던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TV(53.7%)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신문을 통해 추가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인터넷을 활용하는 경우는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대학재학 이상)이 낮은 계층(고졸 이하)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며, 직업(학생의 경우 전공)이 이공계인 경우 비이공계보다 인터넷과 잡지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학기술 관련 정보 전달에서 '정확성'이 가장 중요

우리 나라 국민의 63%는 과학기술과 관련한 정보전달에 있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쉽게 전달하는 것' (20.2%), '깊이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 (9.4%)순으로 조사된 반면,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2.8% 수준으로 나타나 과학관련 정보 전달에 있어서 신속성보다는 정확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69.1%와 70.5%로 40대와 50대의 58.2%, 56.1%에 비해 10%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40대와 50대의 경우 '깊이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20대와 30대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나타나 이들 집단간에 정보 전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업(학생의 경우 전공)이 이공계인 응답자들은 비이공계 응답자들에 비해 '깊이 있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응답률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관련 정보의 전달 매체에 대하여 매체 신뢰성, 내용의 정확성과 평이성을 묻은 결과 세 가지 항목 모두 TV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 국민들은 과학기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중 TV를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V는 정보의 내용 평이성에서 57.1%, 믿음이 가는 매체에서는 44.1%, 내용의 정확성에서는 35.3%로 나타나 과학기술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긍정적인 매체로 나타났다. 또 내용이 이해하기 쉽다는 응답이 매체 신뢰성과 내용의 정확성보다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문의 경우 내용의 정확성(21.9%), 매체 신뢰성(21.8%), 내용의 평이성(14.7%)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매체는 내용의 평이성(10.8%), 매체 신뢰성(4.9%), 내용의 정확성(4.3%)으로 조사되어, 인터넷 매체가 기존의 인쇄매체인 잡지(정확성:6.3%, 매체 신뢰성: 4.5%, 내용 평이성: 1.5%)보다 내용의 평이성과 매체 신뢰성이 높았다.

세부 분석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매체 신뢰성 항목에서는 남녀가 모두 TV에 대한 신뢰가 높은 가운데, 남성은 인터넷 매체

(6.3%)를, 여성은 잡지(5.6%)에 대한 신뢰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내용의 정확성 항목과 관련, 남성은 신문(24.1%), 인터넷 매체(4.9%)에 대한 인식이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던 반면, 여성은 잡지(7.2%)에 대한 인식이 남성에 비해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 87.0%, '줄기세포 연구' 관련 정보 접해

과학기술 정보가 포함된 매체의 구매의사에 대하여 TV가 19.4%로 가장 높았다. 잡지(18.1%)와 신문(16.7%)의 구매의사 역시 높은 수준이었으며, 인터넷 매체에 대한 구매의사도 12.8%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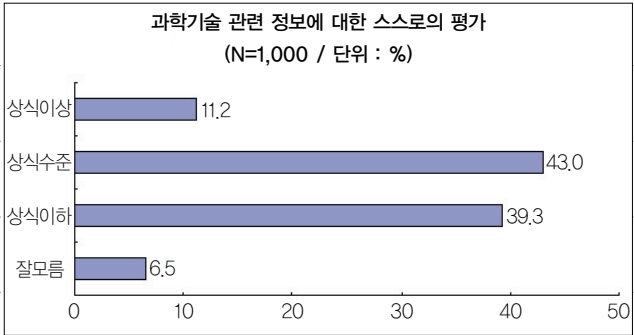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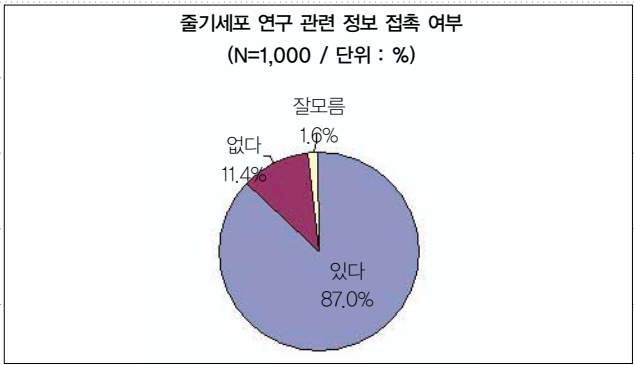
성별로 남녀 모두 TV의 구매의사가 가장 높은 가운데 남성은 신문(17.6%), 여성은 잡지(19.4%)에 대한 구매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는 잡지(각각 28.7%, 21.0%), 40대는 신문(20.3%), 50대는 TV(30.5%)에 대한 의견이 높아 연령별로 과학기술 정보가 포함된 매체의 구매의사에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교육수준이 높은 계층(대학재학 및 졸업 이상)에서는 잡지에 대한 구매의사가 높았던 반면,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고졸 이하)에서는 TV라는 응답이 높았다.

우리 나라 국민의 87.0%는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한 정보를 접한 것으로 나타나 황우석 교수로 인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줄기세포 연구'를 접한 경험 자들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한 매체의 유용성을 묻은 결과 응답자의 53.2%는 TV를 통해 얻는 정보가 가장 유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신문(24.9%), 인터넷 매체(9.2%)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TV라는 응답률이 10.8% 높았던 반면 남성은 신문(26.6%), 인터넷 매체(11.9%), 인터넷 검색(7.6%) 등으로 응답해, 여성보다 유용하다고 인식하는 매체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에서 전체적으로는 정보의 유용성 항목의 경우 TV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 20대의 경우 인터넷 매체(21.8%), 나머지 연령대 신문(30대: 24.6%, 40대: 34.5%, 50대 이상: 25.1%)에 대한 응답률이 높았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신문, 인터넷 매체, 인터넷 검색에 대한 응답률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은 줄기세포가 질병퇴치의 시기를 상당히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성(85.5%)이 여성에 비해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 규모가 클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 응답이 높아 줄기세포에 대한 정보접촉이 높았던 이들 계층이 이용가능성에 대한 기대 역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과학기술과 관련 정보에 대한 평가와 관련, 응답자의 43.0%는 스스로 '상식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절반 정도(48.9%)가 '상식수준'으로 응답한 반면, 여성은 38.2%만이 '상식수준'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의 절반 정도(47.1%)는 '상식 이하'라고 응답하였다.

교육수준별로는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낮은 응답자(중졸과 고졸)의 절반 정도가 '상식 이하'라고 응답했고,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은 응답자(대학재학 이상)의 절반 정도는 '상식수준'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직업(학생의 경우 전공)이 이공계인 응답자의 경우 '상식 이상'이라는 응답자가 19.7%로 비이공계의 8.3%에 비해 11.4% 높아 스스로의 과학기술 관련 정보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㉔